

대한민국 사회교육 대표 모델 '장성아카데미' 1000회

1997년 9월 열린 '21세기 장성아카데미 100회 기념 심포지엄'.

제906회 장성아카데미가 2015년 8월 축령산에서 첫 야외 강연으로 진행됐다.

장성아카데미 운영 실적

□ 운영횟수 : 999회(1995.9.15~2017.6.15)

□ 강사 신분별 현황(단위: 명)

전·현직총리	국회	대학총·학장	대학	연구소장	기업	지역내	문화	언론인	기타
장·차관	의원	대학원장	교수	연구원	경영인	전문인	예술인		
100	20	61	226	182	108	14	61	54	173

□ 주제별 현황(단위: 회)

의식	지방	경영	경제	지역	농촌	건강	정보화	통일	문화
개혁	자치	마인드	개발	개발	발전			안보	예술
394	77	79	77	58	57	74	40	40	103

□ 사업비(단위: 천원)

1995~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766,367	104,000	94,600	90,300	127,500	127,530	118,700	139,860	149,868	146,610
(600회)	(52회)	(42회)	(43회)	(51회)	(48회)	(48회)	(51회)	(50회)	(50회)



김항식(오른쪽) 전 국무총리가 20주년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5년 12월 '20주년 기념행사'에서 유두석 장성군수가 기념사를 하고 있다.



장성아카데미를 창시한 김흥식 전 군수의 부인 조송 여사와 아들 김용민씨(왼쪽)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1995년 9월 15일 첫 '21세기 장성아카데미'(이하 장성아카데미)가 시작된 이래 22년동안 매주 한차례씩 열리는 장성아카데미가 역사적인 1000회를 맞는다.

장성군은 22일 장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군민과 유두석 군수, 군의원 역대 아카데미 강사, 유관기관장 등 주요 인사 700여명을 초청해 '천 번의 두드림(Do dream), 깨어나는 미래'를 주제로 '제1000회 21세기 장성아카데미'를 연다.

이번 아카데미는 1000회를 기념하는 기념식과 특별강연으로 꾸며진다.

오후 3시 시작되는 기념식은 오프닝 공연과 유두석 군수의 기념사, 주요 귀빈의 축사 메시지가 영상으로 상영되고, 기념공연으로 장성아카데미를 통해 함께 발전해 온 장성군과 군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샌드 드로잉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1995년 9월 첫 시작...지방자치시대 혁신 사례로 꼽혀
22일 '천번의 두드림, 깨어나는 미래' 주제 1000회 강연
샌드 드로잉 퍼포먼스·김제동 토크 콘서트 등 행사 다채

기념식 뒤에는 1000회 강연으로 인기 방송인 김제동씨가 토크콘서트를 연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천 번의 두드림(Do dream)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주제로 객석 인터뷰 형식으로 2시간동안 진행된다.

토크 콘서트에서는 그동안 아카데미에 애정을 보여준 정중의 사연이 다뤄질 예정이다.

매주 빠지지 않고 오시는 고령의 어르신부터 전통휠체어를 타고 오는 장애인, 홍보리플렛에 있는 시를 휴대전화기에 한달

동안 붙이고 다니시는 어르신까지 소소하지만 재미있는 사연들이 소개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지난 22년동안 양질의 강연을 자랑분 삼아 성장해 온 청중들이 이제는 강연자와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1000회 기념 강연은 소통형 토크 콘서트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무대 밖 로비에서는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된다. 장성아카데미 강연을 묶은 강연집의 전시와 판매가 이뤄지고, 그동안 강연을 다녀간 1000명의 강사사진을

배경으로 한 포토월이 세워진다.

장성아카데미, 옐로우시티와 관련된 사진 전시회도 예정돼 있다. 또 '1000회 아카데미를 만든 사람들'을 주제로 주요 강사와 외빈, 청중들의 인터뷰가 담긴 영상도 상영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장성아카데미는 지난 22년간 장성 발전을 위한 '의식개혁'의 본 뜻을 넘어 대한민국 사회 교육의 대표 모델이자, 지방자치시대 혁신 사례로 손꼽히며 장성의 대표 브랜드가 됐다"면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해가고 있는 장성아카데미가 앞으로도 장성의 역사로 기록될 수 있도록 군민과 함께 키워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999회 기준 장성아카데미의 강연 무대에 오른 강사수는 928명이며, 참석 청강생수는 36만27명이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국무총리·장관·CEO·교수·연예인 등 명강의...장성 대표 브랜드로

장성아카데미 명품 강사진

장성아카데미는 1000회라는 긴 역사만큼 '명품 강사진'을 강의 무대에 세운 것으로도 유명하다.

전·현직 국무총리부터 장·차관, 유명 CEO, 연예인 등 장성아카데미의 강사로 이름을 올린 직업군도 다양하다.

이 때문에 장성아카데미 무대에 올랐다는 것 자체가 각 분야의 전문가 중 전문가라는 것을 인정받은 것으로 인식되면서 강의력을 자랑하는 유명인들도 많다는 게 장성군의 설명이다.

의식개혁 분야 394건 최다
김항식·김병조·김성훈 등
양코르 강의 요청도 상당수

19일 장성군에 따르면 장성아카데미 999회를 기준으로 강사 신분별 현황을 살펴보면, 아카데미라는 이름에 걸맞게 대학교수가 226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소장·연구원이 182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기업·경영인 108명, 전·현직 총리,

장·차관급 100명, 대학총·학장·대학원장 61명 등의 순이었다. 아카데미 강의 주제는 의식개혁 분야가 394건으로 가장 많았다.

장성아카데미 무대에 선 유명인들이 '양코르 강의 요청'을 받아 무대에 다시 오른 사례도 다수다.

장성아카데미에 지금까지 가장 많이 초청된 사례는 3차례로, 초청 강사는 3명이다.

개그맨 출신으로 '배추머리' 김병조 조선대학교 특임교수가 '명심보감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란 주제·강의로 큰 인기를

끌어 3차례 강의했다.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은 '한국농업의 활로 찾기', 양병무 전 노동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자신의 몸값을 높여라' 등을 주제로 각각 강의해 3차례나 아카데미 무대에 섰다.

2차례 초청된 강사는 30여 명에 이른다. 김항식 전 국무총리부터 오지 여행가로 유명한 한비야 월드비전세계시민학교장, 윤방부 연세대학교 의대 명예교수, 신달자 시인, 김경진 국회의원,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개그맨 전유성 등이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지리산 온천지구내, 호텔급 대형 모텔, 회사 사정상 매매.

케이블카 운영시 대박!

■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대지 573평 건물 685평
지하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 식당 /세미나실/객실
2~4층 - 객실

■ 전체 리모델링, 6월20일 오픈예정

■ 동업 하실분 환영!

■ 연 순수익 3억정도 가능

■ 연수원, 수련원 등 기타시설 이용 가능

■ 시세/감정가 - 17억
매매 - 14억 5천만원 (조정가능)

■ 용자 8-10억 가능, 법인체 인수 가능
주인직매 H. 010-3605-5000